

당사자 사퇴로 치르는 보궐선거에 또...

# 강도석 광주시의원 재출마 '논란'

### 선거 비용 3억여원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지방자치 회화화·유권자 우롱” 비난 빚발

지난 4·9 총선에 나섰다 낙선한 전 광역의원이 자신의 출마 공백으로 인해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재도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도석 전 광주시의원은 21일 “성급한 총선출마로 지역주민에게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다시 한번 지역 유권자의 심판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그 지역(남구 제1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이같은 사례는 지난 2004년 6월 전남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군수직을 버렸다가 낙선한 뒤 그해 10월 군수

보궐선거에 다시 나선 전 민화식 전 해남군수에 이어 광주·전남에서는 두번째다.

그는 지난해 4월, 12번째 도전 끝에 그것도 재선거를 통해 시의회에 입성했으나 10개월만인 지난 2월 “보다 큰 정치를 하겠다”며 스스로 물러났다.

당시 강 전의원의 정치 행보에 대해 지방의회에 입문한 뒤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의정활동을 접는 것은 지방자치회 회화화(數畫化)하고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또 보궐선거 비용은 각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후임을 뽑는

선거가 이뤄지게 되면 경비는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3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을 낭비하는 데 대한 비난여론도 만만치 않다.

김기홍 광주경실련 정책부장은 “출마에 앞서 주민 대표로서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과 자신의 중도 사퇴로 발생하는 선거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지난해 보궐선거 때 남구 시의원 1명을 뽑는데 들어간 비용은 2억8천743만원. 선거 계도·홍보·단속 경비, 투·개표 사무인 수당, 선거공보 작성비 등 법정관리비용에 후보들이 쓴 선거 비용까지 보전해 준 것이다.

여기에 새 시의원을 뽑는데 또다시 3억131만원(예산)에 달하는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때 부담한 경비(의원 1인당 2

억7천788만여원)를 감안하면 지역민들 입장에선 한 임기(4년)의 시의원 1명을 뽑는데 3차례에 걸쳐 8억6천662만여원의 경비 부담을 하게 된 것이다.

강 전 의원은 무소속으로만 '11전 12기'의 진기록 끝에 시의원에 당선됐으나 지난 4월 총선에서 낙선했다.

그는 1988년 국회의원(13대) 도전을 시작으로 총선 5번, 단체장 6번, 광역의원 2번 등 모두 13번 도전했으며 오는 6월 4일 재보선에 나설 경우 14번째 도전이 된다.

강 전 의원은 “이번 선거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지역주민의 평가를 받지 못하면 다시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강 전 의원처럼 자신의 사퇴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노무현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2008 합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합평군 합평읍 엑스포공원 국제나비관에서 부인 권양숙 여사, 이석형 합평군수 등과 함께 나비를 날리고 있다.

## 합평 찾은 盧 “동심 가득 안고 갑니다”

### 어제 나비엑스포 공원 방문후 귀향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21일 오전 '2008 합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전남 합평군 엑스포 공원을 방문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참여정부 시절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석형 합평군수, 노씨 종친 등과 함께 엑스포 전시관을 둘러봤다.

등산화를 신고 잔한 감색 자켓을 입은 노 전 대통령은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았고 곤충 전시관에서는 물방개를 직접 손으로 만지며 “어렸을 때 (물방개) 다리에 줄을 달아 놀았다”며 옛 시절을 떠올렸다.

이날 엑스포를 찾은 관광객들은 노 전 대통령을 향해 손을 흔들거나 사진을 찍는 등 열렬히 환호했고 특히 학생들은 “노무현 아저씨”를 연호하며 노 전 대통령을 반겼다.

노 전 대통령은 국제나비생태관 앞 팸나무에서 기념식수를 하고 방명록에 ‘아름다운 창조지 현장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짧은 소감을 남겼다.

이어 엑스포 만남의 광장에서 학생들과 학부모 등에게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한 노 전 대통령은 수행팀, 시민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엑스포

장 전시관에서 나비, 곤충들을 보며 “나비, 신기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동심으로 돌아간 모습이 엿보였다.

노 전 대통령은 엑스포 공원을 둘러본 뒤 수행 비서, 경호원 등과 함께 버스에 올라 사저가 있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로 떠났다.

노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이석형 합평군수는 “지역균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노 전 대통령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성과물에 고맙다는 말을 남겼다”며 “어릴 때 봤던 곤충을 다시 보고는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듯 감상에 젖었다”고 전했다.

/합평=박영진기자 pyj4079@

# 이한정 당선자 구속

### 취업 사기·기자 사칭·공갈 등 과거 전과 경력도 정치권 화제

수원지법 공안부(윤용걸 부장검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사 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창조한 국당 비례대표 당선자 이한정(57)씨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송석봉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검찰이 청구한 이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8대 총선 당선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씨의 전력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이 지난 2000년 11월 선고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0년 총선에서 경기도이전에 출마해 이번 경우처럼 고교·대학 학력과 경력을 위조하고 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의 기소돼 징역 2년(향소심 1년6월로 감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이씨는 지난 1996년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연변대학교 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수원대학교 경영

대학원 입학전행에 제출했다가 검찰 수사를 통해 발각돼 석사학위가 취소됐다.

판결문에 나타난 그의 전력은 더욱 다양하다. 이씨는 지난 1975년 여인숙집 딸을 고속버스 회사 경리사원으로 취직시켜준다고 속여 2만원을 챙겼다가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78년에는 방송사 간부직원을 사칭해 정육점 주인에게 쇠고기 10근을 편취했고 방송사 기자라고 속여 대기업 계열사에서 2만원을 받아챘다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5·18관련단체 경력은 당시 회장으로부터 고문직을 위촉받았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직은 겸임이 비례대표 1번 양정래 당선자에 이어 이번주 내에 감노식 당선자도 소환키로 하자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 비례대표 당선자 검찰 수사 확대 야권 “대표에 불똥 튈라” 당혹

야당의 일부 비례대표 당선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야권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특별당비 문제 등 비례대표 심사 전반으로 파문이 확산되면서 당 대표는 물론 당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민주당은 주시 거대로 수백억 원대 부당 차익 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국교 비례대표 당선인과 관련, “본인이 소명할 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긴장하고 있다.

특히, 정 당선자가 지난해 손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졌다다는 점에서 수사 진행 추이에 따라서는 손 대표에게도 화살이 날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실제로 당 안팎에서는 비례대표 심사과정을 둘러싸고 무성하게 흘러나왔던 구구한 의혹들이 ‘정국교 파문’을 계기로 증폭되고 있다. 친박연대는 검찰이 비례대표 1번 양정래 당선자에 이어 이번주 내에 감노식 당선자도 소환키로 하자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당장 검찰이 계좌추적 등을 통해

양 당선자가 적어도 10억원 이상의 특별당비를 낸 사실을 확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곤혹스런 표정이 역력하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지난 주말 서청원 대표의 지구당 사무실을 압수수색, 검찰수사의 중심이 서 대표 쪽으로 옮겨가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자 자칫 당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감마저 나오고 있다.

서 대표는 이와 관련, 21일 오전 최고위원 조찬간담회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특별당비 명목으로 받은 것은 없다”고 결백을 거듭 주장했다.

창조한국당은 구속된 이한정 비례대표 당선자가 당의 거들된 사퇴권고에도 ‘버티기’로 일관하자 22일 대법원에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기로 했다.

당선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이 당선자는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비례대표 후보 3명이 이를 승계, 창조한국당은 의석 수(3석)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문국현 대표의 책임론이 거론되는 등 뒤송송한 분위기가.

/임동욱기자 tuim@

## 강기정 의원 4년간 10억 1천만원 '1위'

### 광주·전남 후원금 현황...정동채 의원 3억 4천만원 최저

지난 4년(2004~2007년) 동안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중 강기정(광주 북갑) 의원이 가장 많은 후원금을, 정동채(광주 서을) 의원이 가장 적은 후원금을 각각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후원금 현황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10억1천461만원의 후원금을 모금, 광주·전남 1위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도 7위였다. 다음으로 최인기(나주·화순) 의원이 10억1천152만원, 양형일(광주 동) 의원이 9억4천874만원, 김동철(광주 광

산) 의원이 8억9천38만원의 후원금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이상열(목포) 의원은 4년 동안 3억4천581만원의 후원금을 모금, 최하위(의원직 상실자 및 재보궐 선거 당선자 제외)를 기록했으며 3선의 정동채 의원은 2004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관계로 3억4천740만원의 후원금을 받는데 그쳐 뒤를 이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만 할 경우 최인기 의원이 2억8천716만원을 거둬 1위를 기록한 반면, 2007년 4월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 입성한

김홍업(무안·신안) 의원은 3천633만원의 후원금을 거둬 최하위를 기록했다. 2006년 하반기에 국회 입성한 채일병(해남·진도) 의원도 지난해 4천914만원의 후원금만 걷는데 그쳤다.

4년 동안 가장 급격한 후원금 액수의 변화를 경험한 의원은 김홍업(장성·담양·곡성) 의원으로 지난 2004년 3억3천361만원에서 올해 1억2천308만원만으로 2억1천521만원이나 줄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했던 염동연(광주 서갑) 의원도 4년 전 2억9천821만에서 올해 1억1천645만원으로 1억8천176만원이나 후원금이 줄어 권력의 무상함을 실감케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56

광주일보  
광주·전남지역을 증진합니다

**대승공인중개사**

내선민씨부

TEL : 010-93284-7702

**출권·부동산 리서치**

김영자 대표

TEL : 010-93284-7708

**베스트공인중개사사무소**

김영자 대표

TEL : 010-93284-7708

**(주)상무산업개발**

김영자 대표

TEL : 010-93284-7708